

# 1級

全21ページ  
聞・書 20問/30分  
筆記 50問/80分

# ハン 検

## 2018年 春季 第50回 「ハンゲル」能力検定試験



### 【試験前の注意事項】

- 1) 監督の指示があるまで、問題冊子を開いてはいけません。
  - 2) 聞きとり試験中に筆記試験の問題部分を見ることは不正行為となるので、充分ご注意ください。
  - 3) この問題冊子は試験終了後に持ち帰ってください。  
マークシートを教室外に持ち出した場合、試験は無効となります。
- ※◎3などの番号はCDのトラックナンバーです。

### 【マークシート記入時の注意事項】

- 1) マークシートへの記入は「記入例」を参照し、HB以上の黒鉛筆またはシャープペンシルではっきりとマークしてください。ボールペンやサインペンは使用できません。  
訂正する場合、消しゴムで丁寧に消してください。
- 2) 解答は、マークシートの記入欄(オモテ面)とウラ面の記述式解答欄に記入してください。  
記述式解答をハンゲルで書く場合は、南北いずれかのつづりに統一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ものとします。二重解答は減点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 3) 氏名、受験地、受験地コード、受験番号、生まれ月日は、オモテ・ウラもれのないよう正しくマークし、記入してください。
- 4) マークシートにメモをしてはいけません。メモをする場合は、この問題冊子にしてください。
- 5) マークシートを汚したり、折り曲げ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

※試験の解答速報は、6月3日の試験終了後、協会公式HPにて公開します。

※試験結果や採点について、お電話でのお問い合わせにはお答えできません。

※この問題冊子の無断複写・ネット上への転載を禁じます。

◆次回：秋季 第51回検定 2018年11月11日(日)実施◆

# 듣기와 받아쓰기 문제

㉔ 4

**1** 들으신 문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1번~2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㉔ 5

1) ..... **1**

① .....

② .....

③ .....

④ .....

㉔ 6

2) ..... **2**

① .....

② .....

③ .....

④ .....

㉞ 7

**2**

대화를 듣고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3번~4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㉞ 8

1)

남 : .....

여 : .....

남 : .....

여 : (      **3**      )

① .....

② .....

③ .....

④ .....

㉞ 9

2)

남 : .....

여 : .....

남 : (      **4**      )

① .....

② .....

③ .....

④ .....

㉓ 10

**3** 대화문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5번~6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㉔ 11

1)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5**

여 : .....

남 : .....

여 : .....

.....

남 : .....

① .....

② .....

③ .....

④ .....

㉔ 13

2) 남자의 생각으로 맞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6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여 : .....

① .....

② .....

③ .....

④ .....

㉠ 15

**4**

문장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7번~8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 16

1) 문장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7**

-----  
-----  
-----  
-----  
-----  
-----  
-----  
-----  
-----  
-----

① -----  
② -----  
③ -----  
④ -----

㉔ 18

2) 문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8

-----  
-----  
-----  
-----  
-----  
-----  
-----  
-----  
-----  
-----

- ① -----
- ② -----
- ③ -----
- ④ -----

㉔ 20

**5**

대화문을 들으신 다음에 【물음 1】~【물음 2】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9 번~10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㉕ 21

남 : .....

여 : .....

남 : .....

여 : .....

남 : .....

.....

.....

【물음 1】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9**

- ① 남자는 제주도 토박이지만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
- ② 도회지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어 서울 생활을 접었다.
- ③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서적들을 펴내는 일을 했었다.
- ④ 제주도의 창업 환경은 외지인들에게는 혜택이 크지 않다.

【물음 2】 대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10**

- ① 외지인들이 제주도에 정착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 ②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크다.
- ③ 창업 환경이 나쁘다고 볼 순 없지만 고생할 각오는 필요하다.
- ④ 서울 친척들도 제주도에 많이 내려와서 살고 있다.

㉔ 22

**6**

문장을 들으신 다음에 【물음 1】~【물음 2】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11번~12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㉕ 23

-----

-----

-----

-----

-----

-----

-----

-----

-----

-----

【물음 1】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11**

- ① 한 시대의 상품의 모습이 그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한다.
- ② 지금은 쓸모 없어진 물건이라도 유물로서는 큰 가치가 있다.
- ③ 발굴된 유물을 살펴보면 특정 시대의 생활상을 추측할 수 있다.
- ④ 빨간색 공중전화 박스는 영국 거리의 상징이었다.

【물음 2】 문장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12**

- ① 영국에서는 공중전화 박스를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충전소를 세웠다.
- ② 대학생들의 발상으로 전화 박스 안에 천연 에너지 충전기를 설치했다.
- ③ 태양광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급속 충전하는 데 5분이 걸린다.
- ④ 휴대폰에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면 충전이 무료로 제공된다.

㉔ 24

**7**

괄호 부분을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 답은 한 가지만을 쓰십시오. 한자 대신 히라가나로 써도 됩니다.

(마크시트 뒷면의 기술식 해답란을 사용할 것)

〈2点×4問〉

㉕ 25

1) 개가 줌 ( ① ) 알고 보면 ( ② ).

㉖ 26

2) 행동이 줌 ( ① ) 그렇게 ( ② ).

㉗ 27

3) 오늘따라 ( ① ) 얘기 도중에 ( ② ) 참견하는 게 못마땅했다.

㉘ 28

4) ( ① ) 남다른 ( ② ).

㉔ 29

**8**

괄호 부분을 한글로 받아쓰십시오.

(마크시트 뒷면의 기술식 해답란을 사용할 것)

〈2点×4問〉

㉕ 30

1) 그는 ( ① ) 한쪽 눈을 ( ② ) 말하기 시작했다.

㉖ 31

2) 다소 ( ① )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 ② ) 점이 마음에 든다며 되레 칭찬한다.

㉗ 32

3) 여론이 ( ① ) 타면서 그동안 ( ② ) 취급되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㉘ 33

4) 나의 ( ① ) 속내를 ( ② ) 짐작이라도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 필기 문제

**1**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1번~10번을 사용할 것) 〈1点×10問〉

1)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이 ( **1** )가/이 아니다.

- ① 사단                      ② 능사                      ③ 귀감                      ④ 여부

2) 미술품은 ( **2** )를/을 제대로 만나야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 ① 궁합                      ② 벼슬                      ③ 짝                          ④ 임자

3) 내 얼굴을 보자마자 ( **3** ) 화부터 내는 거 있죠.

- ① 벌렁                      ② 대뜸                      ③ 부쩍                      ④ 성큼

4) 진술을 ( **4** ) 따라 진위 여부 확인에 들어가게 되었다.

- ① 번복함에                  ② 도치함에                  ③ 발족함에                  ④ 발탁함에

5) 소매까지 ( **5** ) 집중하는 모습이 이번엔 고시 붙을 거 같던데.

- ① 제쳐 두고                  ② 넘겨 놓고                  ③ 쓸어 올리고                  ④ 걷어붙이고

6) 한동안 ( **6** ) 요즘엔 웬일로 자주 드나드는 거야?

- ① 뜸하더니                  ② 잦더니                      ③ 팔팔하더니                  ④ 궁하더니

7)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 **7** ) 먹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 ① 고달프게                  ② 딱하게                      ③ 모질게                      ④ 잔하게





2) 나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굶이나 보고 떡이나 ( **20** ).

- ① 먹자더라니      ② 먹더구만      ③ 먹으련만      ④ 먹으련다

3) 부엌에 떡구름이 낀 게 비가 ( **21** ) 하네요.

- ① 오라 마라      ② 오거나 말거나      ③ 올라 말라      ④ 오고 말고

4) 아이고, 누가 장녀 ( **22** ) 또 후배들부터 챙기려 드네요.

- ① 안 하고 말지      ② 아니랄까 봐서      ③ 하려 들까 봐      ④ 아니다 뿐이지

**5** (      )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23번~25번을 사용할 것)      <1点×3問>

1)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날은 외출이 ( **23** ).

- ① 머뭇거리진다      ② 망설여진다      ③ 주저된다      ④ 썰렁해진다

2)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려 보여서 나이를 ( **24** ) 못하겠어요.

- ① 가늠하지      ② 헤아리지      ③ 가다듬지      ④ 어림잡지

3)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 **25** )

- ①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 ② 그렇게 팔짱만 끼고 계실 거예요?
- ③ 눈에 쌍심지만 켜고 있으면 다예요?
- ④ 뒷짐만 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6**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26번~27번을 사용할 것)

〈1点×2問〉

1) 주무르다

**26**

- ① 왼쪽 어깨가 뻐근하니 좀 주물러 주겠니?
- ② 빨래를 너무 열심히 주물렀더니 팔이 아프다.
- ③ 대기업의 배급사들이 영화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셈이다.
- ④ 그 회칙은 주무르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 젖히다

**27**

- ① 고개를 뒤로 젖히고 크게 입을 벌려 보세요.
- ② 커튼을 젖히고 대청소를 시작해 볼까 한다.
- ③ 여기는 포스터를 붙이면 안 되니 젖혀 주십시오.
- ④ 피곤하시면 의자를 뒤로 젖히고 좀 쉬세요.

**7** 밑줄 친 부분의 말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문장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28번~29번을 사용할 것)

〈2点×2問〉

1) 그렇게 입을 썩 내밀고 다니면 복이 다 달아난단다.

**28**

- ① 옷을 삶았더니 목은 때가 썩 빠졌다.
- ② 자라가 목을 썩 빼고 두리번거렸다.
- ③ 그는 옷을 썩 빼입고 맞선 장소로 나갔다.
- ④ 십 년 목은 체증이 썩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2) 만원 버스에 부대끼고 밀린 일에 치이고 직장인은 고달프다.

**29**

- ① 간만에 포식했더니 속이 부대껴서 혼났다.
- ② 간밤에 나뭇가지들이 부대끼는 소리에 잠을 설쳤다.
- ③ 사람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법이다.
- ④ 어머니는 종일토록 칭얼대는 아이에게 부대졌다.

**8** 다음 문장들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30번~32번을 사용할 것)

〈1点×3問〉

1)

**30**

- ① 쓰라린 속을 달래기 위해 죽을 시켰다.
- ② 선심을 떠는 척하면서 대가를 바라지 말자.
- ③ 염치가 나쁜 사람은 말도 못 붙인다.
- ④ 그 말을 듣자마자 목청을 놓아 엉엉 울었다.

2)

**31**

- ① 떡살을 채면서 싸우는 모습이 보기에 안 좋았다.
- ② 땀을 넣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어때요?
- ③ 양이 적은 게 아쉬워서 입맛을 다시는 것이었다.
- ④ 엄마를 찾으려 우는 아이 모습에 가슴이 우릴 정도였다.

3)

**32**

- 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가고 말라치면 뭐 하러 가?
- ② 귀찮다고 가스 불 꺼진 거 확인 안 해 버릇하면 큰일난다.
- ③ 있는 법한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한다.
- ④ 아직도 그렇게 투정 부려야 어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어요?

9 ( ) 안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마크시트의 33번~36번을 사용할 것) <1点×4問>

1) A : 여보, 오늘 민호 모의고사 성적표 나온 거 봤죠?  
B : 단번에 등수 올려 놓겠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수학 빼고 엉망이더군.  
A : ( 33 ).  
B : 하긴. 이제 좀 정신 차린 것 같기도 하고.

- ① 그 정도면 감지덕지죠. 꼴찌를 면한 게 어디예요
- ② 아무리 타일러도 지지부진할 때 알아봤어야 했어요
- ③ 그러게 속는 셈 치고 믿어 보자고 그랬었잖아요
- ④ 너도 속개나 썩어졌다 했더니 여태 저러고 틀어박혀 있어요

2) A : 요새 영화에 비속어가 많이 등장하는 거 같아요.  
B : 그렇게 말이에요. ( 34 ).  
A :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랑 보면 민망해요.  
B : 그건 그렇죠.

- ① 일부러 많이 넣어서 흥행에 실패한 적도 있던데요
- ② 그렇다고 너무 순화하면 사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죠
- ③ 그나마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다행이지만요
- ④ 대본 그대로 하면 좀 더 점잖게 들릴 텐데

3) A : 도둑 들어왔을 때 ‘꼼짝 말고 손들어’라고 하잖아요.  
B : ( 35 ).  
A : 제 말이에요. ‘손을 든 후 꼼짝 마라’가 맞는 말이지요.  
B : 그런 게 의외로 많대요. ‘문 닫고 들어와’ 이런 거?  
A : 논리적으로는 모순이지만 상황적으로 서로 이해한다고 하니 신기하죠.

- ① 그게 어때서요? 저는 상황적으로 이해가 가던데
- ② ‘손을 들고 꼼짝하지 마라’라고 하면 너무 길잖아요
- ③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말실수를 한 거죠
- ④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라 나도 전부터 좀 걸렸어요

- 4) A : 내일부터 2박 3일로 캠핑 같이 갈 생각 없어?  
 B : 매일 잔업 때문에 잠잘 시간도 부족한 판에 무슨.  
 A : 나도 그래. ( **36** ).  
 B : 학창 시절부터 그러더니 그 성격 여전하구나.

- ① 사실은 회사일 때문에 출장 가는 거야
- ② 그래서 잠자다 누가 일어나도 모른다고 하잖아
- ③ 근데 난 주말에 집에 있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거든
- ④ 좀 황당하지만 그래도 잔업 수당은 챙겨야지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 1】~【물음 2】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37번~38번을 사용할 것)

〈1点×2問〉

김연아 선수가 입었던 한글 무늬 티셔츠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 옷은 한글을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는 이상봉 디자이너의 작품이다. 그는 세계 최고 패션 쇼에 진출해 매 시즌 쇼를 진행해 왔으며 한글 무늬 옷도 선보이고 있어 한글 패션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한 인터뷰에서 한글 디자인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한글의 문제는 진화를 못 했다는 것입니다. ( **37** ). 먹으로 쓴 한글, 낙서 하듯 쓴 한글, 어린애가 쓴 한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자음과 모음을 분리할 수도 있고 재즈적인 한글, 팝적인 한글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시도가 없었어요. 저는 요즘 글씨 안에 그림을 넣거나 그림 안에 글씨를 넣기도 해요.”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디자인화가 되어야 한다. 한글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되기 어렵다는 편견부터 깨져야 한다. 한글은 낡고 촌스럽고, 알파벳 같은 것은 세계적이고 세련되었다는 사대주의적 발상도 깨져야 한다.

【물음 1】 ( **37**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37**

- ① 한자의 영향이 너무 뿌리 깊었던 거죠
- ② 역시 전통적인 붓글씨가 가장 한글답죠
- ③ 그냥 모셔 두기만 한 거죠
- ④ 한글을 진화시키는 건 어려웠죠

【물음 2】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38

- ① 진부한 사고 방식을 깨고 한글의 활용성을 더 높여야 한다.
- ② 한글 디자인의 다양화에 관심을 갖고 틀을 깨는 데도 힘써야 한다.
- ③ 한글에 대한 편견을 무너뜨리고 디자인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 ④ 영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를 사대주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

**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 1】~【물음 2】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39번~40번을 사용할 것)

〈1点×2問〉

예상치 못한 실수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악의 없이 벌어진 일이라도 사과할 상황이 생기면 속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저자 마스자와는 사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주장하며 잘된 소통의 예로 M산업을 소개하고 있다. M산업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해 신뢰와 명성을 잃을 위험에 직면했으나 제품 회수를 알리는 공지사항과 사죄를 광고 대신 적극적으로 내보내며 소비자들의 불쾌했던 기억을 지우는데 결국 성공함으로써 지금은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M산업의 사죄와 소통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사과’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기업은 제품 불량이나 리콜 사태를 숨길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인식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부부싸움이나 친구와의 다툼을 생각해 봐도 그렇다. 친할수록 더 감정이 상하고 사과를 해도 그 마음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사과하는 상대의 진심이 느껴진다면 불쾌했던 기억은 서서히 지워지기 마련이다.

【물음 1】 이 글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39

- ① 타이밍이 맞지 않는 사과는 원망을 살 수도 있다.
- ② 사과의 목적은 상대에게 준 불쾌감을 잊게 하는 것이다.
- ③ 사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 ④ 묵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허물없는 소통이 필요하다.

【물음 2】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40

- ① 고의로 저지른 일이 아니더라도 사과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 ② M산업은 신뢰와 명성은 잃었지만 몰락은 면할 수 있었다.
- ③ 제품 관리도 중요하지만 문제 발생시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
- ④ 진정한 사과로 소통한다면 서로가 받은 상처의 기억을 잊을 수 있다.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 1】~【물음 2】에 답하십시오.

(마크시트의 41번~42번을 사용할 것)

〈1点×2問〉

[북(北)의 문헌에서 인용]

《아버진 모든 생활이 자기가 써내는 교육학부문 교과서나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리용하는 강의안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하는게 탈이예요. 교과서의 내용들이 다 현실에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교원생활이 재미있는가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울인 아버지의 정력을 다른 분야에 바쳤다면 ( 41 ) 난 넉넉하고 재미있게 살고싶어요.》 나는 기어이 병원의사가 되라고 강박하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몰방으로 터쳐놓았다. 《이 덜돼먹은 녀석! 아버지의 교육사업까지 짓밟으며 자기를 정당화하려들어? 뭐, 재미? 실리? 졸업하면 응당 가야 할 곳인데 왜 못 가겠다고 뻔대는거냐?》 그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문가에서 들려왔다. 《잘들 있었소? 왜 저렇게 뿔싸움하던 수소들처럼 눈알이 꺾끗해서 마주서있소?》 아버지의 죽마고우 고원초선생님이 이죽거린다.

어머니는 뜨적뜨적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지향과 현실간의 모순이지요.》 《허허, 인류가 풀어야 할 근본과제로군. 누가 지향이고 누가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상한 지향일수록 제나름의 논리와 정당성으로 갑옷을 두른 현실적인 장애가 집요하게 막아서는 법이니까요. 그건 그렇구... 아주머니, 이걸 좀 맛보시우. 저 현실과 지향은 실컷 다투라고 내쳐두고 우리끼리 다 먹읍시다.》

【물음 1】 ( 4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41

- ① 꿈에만 매달린다는게 얼마나 허망한건지 잘 아실겁니다.
- ② 허구한 날 돈타령 하시는거 진절머리가 날수밖어요.
- ③ 우리 집이 지금처럼이야 살지 않겠지요?
- ④ 고진감래의 의미가 뭘지 뼈저리게 느끼실겁니다.

【물음 2】 본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하나 고르십시오.

42

- ① ‘나’는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 ② 아버지는 오랫동안 교편을 잡고 있는 교원이다.
- ③ 고원초선생님은 지향하는 바가 현실에 놀리기 마련이라고 여긴다.
- ④ 어머니는 아버지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13** 다음 문장을 문맥에 맞게 일본어로 번역하십시오. 한자 대신 히라가나로 써도 됩니다.

(마크시트 뒷면의 기술식 해답란을 사용할 것)

〈2点×4問〉

- 1) 반죽이 너무 질면 치대기가 힘들어져요.
- 2) 팬스레 잘못 건드렸다가는 불난 데 부채질 하는 격일 겁니다.
- 3) 지긋지긋한 고질병이 도지는 바람에 또 발목을 잡힌 듯하다.
- 4) 걸멋만 잔뜩 든 애송이라고 치부하기엔 아직 일러.

**14** 다음 일본어를 문맥에 맞게 번역하십시오. 답은 한 가지만을 한글로 쓰십시오.

(마크시트 뒷면의 기술식 해답란을 사용할 것)

〈2点×4問〉

- 1) 私は猫舌なので、お茶もぬるいほうが好きです。
- 2) 甘え上手、世渡り上手な末っ子が羨ましい。
- 3) 縁なし眼鏡をかけたら、神経質な顔に見えるって。
- 4) ささいなケンカで、彼女はすねてしまった。